부처님 성지의 법향으로 불교공부를…



부처님 성지에서 배우는 불교 (상)
글 · 사진 선묵 혜자
시간여행 / 2만원

혜자스님이 부처님성지서 전하는 설법
부처님 4대 성지 소개하며 불교 공부
탄생서 열반까지 부처님 족적 따라가
'유적' '교리' 코너로 공부의 깊이 더해
설명·사진자료 통해 현장감 있게 전해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아난다여, 내가 반열반에 든 뒤에 이 법을 따르는 모든 수행 대중들은 부처님이 나신 때의 공덕과 도를 증득했을 때의 신력이 어떠하며, 부처님이 법 바퀴를 굴린 때에 사람들을 교화하신 모습과 열반에 이르러서 남긴 법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각각 그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탑사를 예경하면 그들은 부처를 보고 가르침을 듣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의 성지를 참배하고 기도하면 많은 공덕이 있음을 설했다.

(사)108산사순례 기도회와 수락산 도안사 회주인 선묵 혜자 대종사가 부처님 성지를 통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출간했다. 순례의 공덕이 담긴 책이다.

책 〈선묵혜자 스님과 함께 부처님 성지에서 배우는 불교〉 상권은 부처님의 8대 성지 중 4대 성지인 탄생지 룸비니와 정각지 보드가야, 초전법륜지 샤르나트,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소개한다.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법향과 함께 '공부'하는 책이다. 탄생에서 열반까지 부처님의 족적을 따라간다. 성지와 관련한 문화와 역사, 설화, 경전뿐만 아니라 성지에서 설해지는 교리, 사상 관련 인물 등을 자세한 설명과 사진 자료 등을 통해 현장감 있게 전한다.

각 장마다 '유적'과 '교리' 코너를 두어 공부의 깊이를 더했다. 특히 '교리' 코너는 입문서에서 볼 수 있는 공부로 채워져 있어 책의 의미를 한껏 키운다.

책은 1. 성인이 나신 땅 룸비니, 2.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 3. 진리를 설한 땅 샤르나트, 4. 열반의 땅 쿠시나가르 4개의 장으로 만들었다.

△'성인이 나신 땅 룸비니'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과거 7불, 부처님 전생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룸비니는 부처님께서 태어난 곳으로, 1896년 독일의 고고학자 휠러 박사가 츄리아 언덕에서 이곳이 룸비니라는 명문이 적힌 아소카왕 석주를 발견함으로써 고증됐다. 부처님께서 태어나 처음 목욕을 했던 구룡연못과 어머니 마야 왕비를 기념하는 순백색의 마야대비 사원, 마야 왕비가 부처님 출산 때 잡았던 보리수, 아소카왕 석주 등이 있다. 룸비니 개발 국제위원회 룸비니 프로젝트에 따라 입구에서 1km에 달하는 호수가 조성되고 '평화의 불'도 모셨으며, 주변에는 세계 각국의 사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내부에는 아름다운 부조와 아기부처님의 첫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에서는 수자타 유미죽, 전정각산, 마왕의 항복 등을 담고 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완성한 성도의 현장 보드가야에는 기원전 250년경 아소카왕이 세운 마하보디 사원이 있고, 사원 안에서 독경, 기도, 오체투지, 좌선, 명상, 행선 등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고요한 곳이다. 사원의 왼쪽에는 높이 25m의 보리수가 있는데 보호용 철책을 둘러친 보리수 한쪽 옆에는 부처님의 커다란 발자국을 새긴 족적이 있고, 반대편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자리인 '금강좌'가 황금색 천으로 덮여있다.

△'진리를 설한 땅 샤르나트'에서는 다섯 비구를 교화한 이야기, 중도와 팔정도, 최초로 교단이 성립된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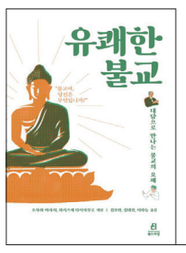
샤르나트는 석가모니부처님이 최초로 설법을 한 곳이다. 우리가 녹야원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에서 약 250km의 먼 길을 걸어와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부처님은 역사적인 전도선언을 한다.

△'열반의 땅 쿠시나가르'에서는 춘다의 공양,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한 이야기 등 부처님의 열반 전 모습들을 담고 있으며,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한 이유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쿠시나가르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곳이다. 부처님은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쿠시나가르에 도착한다. 1년 전에 왕사성을 출발했고 바이샬리에서 마지막 여름 안거를 지낸 뒤였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처님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지 세 번이나 물었다. 아난이 나서 여쭐 것이 없다고 하자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나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저자인 선묵 혜자 스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성지를 순례해도 2600년 전의 부처님을 결코 만날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부처님 곁에 다가가고 싶은 소망은 불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책은 불교를 바로 배우고 자신의 정신을 향상하여 부처님과 그 위대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줄 것"이라고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불교, 현대사회 이정표로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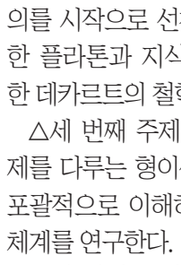
유쾌한 불교
오사와 마사치,
하시즈메 다이사부로 대담
김보라, 김태진, 이하늘 옮김
북드라망 / 2만원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어떻게 26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 일본의 저명한 두 사회학자가 역사·사회·철학·종교를 넘나들며 대화를 나눴다. 책 〈유쾌한 불교〉는 두 학자의 대담집이다.

두 학자는 소크라테스부터 칸트, 베버, 파핏까지 시공을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그 논점을 비교 검토해 불교가 품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일신한다.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는 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 부파불교로부터 전환하게 된 과정, 대승의 논리 구조와 보살의 의미 등 불교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이어진다. 읽다 보면 불교의 큰 줄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붓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 두 종교의 특징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 불교에 대한 철학적 문제, 무상, 고(苦), 무아, 공(空), 중관, 유식 등 난해한 개념들, 인도 초기 불교에서 동아시아 대승불교까지 전래되는 흐름과 사람들이 불교를 만나는 과정, 자유를 향하는 불교의 인생관까지, 불교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그것을 하나로 꿰는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두 학자의 노력이 대담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대로 빛을 발한다. 불교를 둘러싼 지적 자극이 가득하다. 대담 전체를 통해 본 '불교'는 어떻게 정리되었을까. 불교는 철저하게 개인의 종교로, 자유주의적, 합리적, 이상주의적이다. 각자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도그마가 없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각자의 책임이다. 어떤 결과나 사건은 철저히 인과론에 기반하며, 공부와 수련을 통해 어려운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개개인의 변화는 사회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학자는 바로 이런 불교의 특징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사유의 즐거움 서양철학



미네소타주립대학 서양철학 강의
홍창성 지음
불광출판사 / 1만8천원

2019년,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철학 강의의 면면을 지면에 옮겨 많은 인문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미네소타주립대학의 홍창성 교수가 이번에는 자신의 주 전공인 '서양철학'을 들고나왔다. 그의 강의를 지면으로 옮긴 〈서양철학강의〉가 출간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서양철학에서 중요한 다섯 주제를 골라 각 주제와 관련해 역사상 중요했던 다양한 철학 이론을 소개한다.

△첫째 주제는 '삶'이다. 우리가 철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주로 좋은 삶에 대한 추구라는 점을 고려해 윤리학을 첫 번째 주제로 선택했다. 행복한 삶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 이성의 원리를 따라야 도덕적 삶이 가능하다는 스피노자, 그리고 그 반대로 도덕은 인간의 감정에 근원을 둔다는 흄의 견해를 소개한다.

△두 번째 주제는 '앎'의 문제를 다룬다. 앎 또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시작으로 선천적 지식의 존재를 주장한 플라톤과 지식의 제1원리를 발견하려 한 데카르트의 철학을 검토한다.

△세 번째 주제는 '있음'이다.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형이상학은 대상 세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체계를 연구한다.

△네 번째 주제는 '마음'이다. 먼저 마음이 역사상 얼마나 다르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설명한 다음,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본다.

△다섯 번째 주제는 '과학'이다. 철학과 과학이 고대로부터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가를 살펴보며 근대에 이르러 확립된 베이컨의 귀납법을 소개한다. 그 다음에는 과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귀납법과 인과 법칙에 관한 흄의 근본적인 회의론을 논의한다.

이 책은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의 심오한 통찰과 예리한 비판적 사고를 발견하고, 철학의 주요 주제에 관한 열띤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게 되는 깊이 있고 지적인 시간을 만들어 준다. 특히 저자는 이전 저서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와 마찬가지로 현지 강의실의 면면을 지면에 옮겼다.

다양한 비유와 예시, 친절하고 위트 있는 전개로 이루어진 저자의 철학 에세이는 '인문학 좀 한다' 하는 독자는 물론 '서양철학 초보'인 독자들에게도 사유의 즐거움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박재완 기자

알면 알수록 흥미로워지는 불교의 세계, 광활한 사유의 지평을 이 한 권에 담았다!

2,600년 불교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황금시대
불교사 명장면들로 그려 낸 인도 불교철학의 정수!

'원전 텍스트 분석 + 현대 서구 불교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토대로
아비달마·중관학파·유가행파·인명학파 등 주요 학파의 사상 총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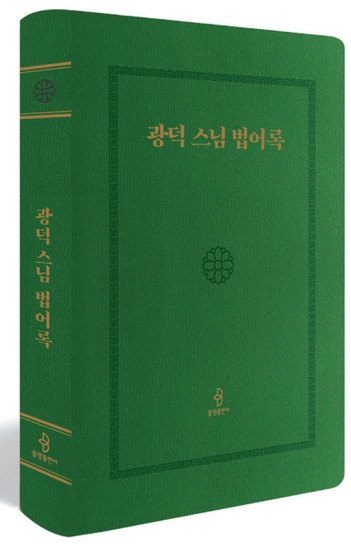
불교철학사를 공부하는 것은 '불교'라는 범주에 포괄되는 여러 가르침을 대하는 성숙한 안목과 태도를 키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불교 전통의 뼈대가 되는 사상 · 철학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깊고 풍요로운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인도 불교 철학
역사와 철학으로 배우는 인도 불교 사상의 모든 것
얀 웨스터호프 지음 | 강병화·유경 옮김
600쪽 | 30,000원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불광 창립 50주년,
그리고 다시금 새기는 광덕 스님의 영롱한 생명의 언어들!

광덕 스님의 말씀과 글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오늘 우리의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광덕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의 정수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3년여에 걸쳐 엄선하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한 권의 법어록으로 집대성하였다.



광덕 스님 법어록
광덕 지음 | 544쪽 | 30,000원

광덕 스님(1927~1999)
1974년 9월 불광회(佛光會)를 창립하고, 같은 해 11월 월간 「불광」 창간, 불교의식문 한글화, 경전 번역, 찬불가 작시, 불광사 대중법회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인의 품으로 돌려주며 대중을 일깨웠다. 스님은 불교의 생활화·대중화·현대화를 정착시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썼으며,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로 존경받았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절대긍정의 세계를 열어보인 스님은 1999년 세연을 조용히 거두고 입적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